

지속 가능한 교육, 지속 가능한 급식 노동을 위하여

-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 연구>

유청희 집행위원장

학교급식실, 이대로 괜찮은가?

여러 매체를 통해, 그리고 당사자들의 꾸준한 투쟁을 통해 학교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잦은 사고 발생, 매년 여름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까지,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알려져 왔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폐암 사망까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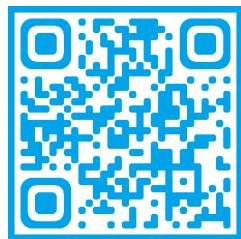
이렇게 알려진 것이 많은 학교급식실에 대해 연구조사를 해보자는 제안이 왔을 때 무엇이 더 밝혀져야 할 것인지 바로 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실태를 확인하고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인력 수준을 수치로 제시하는 일, 그리고 실제 노동자들이 얼마나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는지 관찰하고 측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연구팀은 그런 연구를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는 지속 가능한 교육, 급식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노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는다.

연구는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면접에 이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네 개 학교에서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현장조사는 학교마다 2명의 노동자 선정하여 업무 중심박수를 측정해 노동자에게 노동강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를 파악했다.

학교급식 노동에 필요한 것

그동안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사고 위험도 높기에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도록 배치기준 완화를 계속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1인당 100명 이상의 식수 인원을 책임지는 곳이 많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급식실은 위생 기준은 있어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동일한 기준으로 식수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자에게 몇 명이 더 충원되어야 하는지 묻고 그 수준을

보고서에 제시했다. 노동자가 말하는 충원이 필요한 노동자 수를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이제 노동자가 골병들지 않을 수 있는 배치 기준을 정하는 일을 교육 당국이 해야한다.



▲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 연구
(2025)

쉴 틈 없는 노동과 노동강도의 현장

연구진은 학교 현장에 직접 찾아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업무 시작부터 끝까지 노동자들의 전체 일과를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중 학교별로 두 사람씩 총 8명의 노동자의 휴식 상태의 심박수를 측정한 후 업무 중 심박수와 비교했다. 조리용 속으로 전신을 사용해 움직여야 하는 고기와 같은 주메뉴 조리 시간과 온갖 식기와 식판을 씻는 설거지, 그리고 청소를 할 때 심박수가 높았다. 한 학교는 세척기가 하는 본 세척 전 애벌 세척 시 노동자가 깊은 통에 물을 받아 1000개가 넘는 식판을 물에 행구는데, 이때 허리를 계속 숙이고 식판을 행궈내는 작업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근골격계질환 부담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휴식 시 심박수와 비교할 때 노동자들의 작업 중 심박수가 약 37~46% 정도 높게 상승한다. 과로 정도를 수치화했을 때 과로 수준 아래로 일하는 노동자는 8명 중 2명뿐이었고, 나머지는 허용 기준의 2배, 3배 이상 높은 강도로 일하고 있었다.

복잡한 문제를 푸는 방법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에게는 좁은 휴게실과 짧은 휴식시간, 무거운 식재료와 반복되는 칼질, 미끄러운 바닥의 문제, 일이 힘들기에 신규 노동자의 잣은 퇴사 등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급식실 위치를 정할 때 환기가 중요함에도 노동자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관리자들이 반지하로 정하는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였다. 이렇듯 노동자들은 제기하였지만 바꿔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많다.

노동강도가 적정한 급식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급식실, 휴식시간과 식사 시간이 충분한 급식실, 설비가 위험하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급식실, 이런 급식실을 만들 수는 없을까? 노동자들은 충분히 목소리를 내왔으니 이제 책임자들이 움직일 때다. **일터**